

오르지 못할 벽 없다...첫 메달 노리는 '한국 스파이더'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종목 스포츠클라이밍

"후회 없이 모든 기량을 쏟아내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표팀은 정식 종목 채택 두 번째 대회를 맞아 '무조건 금메달' 대신 선수들의 현재 기량에 맞는 '은메달 1개·동메달 2개'의 현실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종합대회에 첫선을 보였고, 2020 도쿄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신세대 스포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은 콤바인(리드+볼더링+스피드) 1개 종목으로 치러졌는데, 이번 파리 대회부터 스피드가 따로 분리돼 콤바인(리드+볼더링)과 스피드 2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이에 따라 금메달도 도쿄 대회보다 2배가 늘어 4개(콤바인 남녀부 2개·스피드 남녀부 2개)가 됐다.

한국은 도쿄 대회 때 남자부 천종원(28·경기도청·노스페이스)과 서재현(20·서울시청·노스페이스) 2명이 출전했지만, 두 선수 모두 익숙지 않은 스피드 종목에서의 부진으로 메달권에 이르지 못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표팀은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 걸린 '올림픽 티켓' 확보에 실패한 뒤 지난 5~6월에 걸쳐 열린 두 차례 올림픽 퀴리피어 시리즈(OQS)

이도현·서재현·신은철 콤바인·스피드 2개 종목서 은메달 1개·동메달 2개 목표

를 통해 3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콤바인 남자부 이도현(21·서울시청·블랙야크)·여자부 서재현과 스피드 남자부 신은철(25·더럴·노스페이스)이 파리 무대에 출격하게 됐다. 스포츠클라이밍은 파리 대회에서 콤바인(리드+볼더링)과 스피드, 2개 종목에서 총 64명(콤바인 남녀부 40명·스피드 남녀부 28명)이 메달 경쟁을 펼친다.

리드는 15m 높이의 암벽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돌출부·홀드)을 잡고 6분 이내에 가장 높이 오르는 종목이고, 볼더링은 4.5m 높이의 암벽에 설치된 다양한 인공 구조물을 로프 없이 4분 이내에 통과하는 종목이다. 리드와 볼더링 성적의 점수를 합산(200점 만점)해서 메달 순위를 결정한다.

스피드는 15m 높이에 95도 경사면의 인공 암벽을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겨룬다. 두 명이 동시에 등반하는 '단판 승부'로 5초 내외에서 승자가 결정된다.

한국은 볼더링 전문인 콤바인 남자부 이도현에게 은메달을, 리드에 감각이 있는 서재현에게는 동메달을 기대한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강세를 보이는 스피드 남자부에 출전하는 신은철에게는 동메달이 최고 목표다.

파리 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은 현지시간 8월 5일 남자 볼더링과 여자 스피드 예선전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에 출전하는 이도현(왼쪽부터), 서재현, 신은철이 12일 전북 군산시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여자 볼더링 준결승·남자 스피드 예선, 7일 남자 리드 준결승·여자 스피드 결승, 8일 여자 리드 준결승·남자 스피드 결승, 9일 남자 볼더링 및 리드 결승, 10일 여자 볼더링 및 리드 결승이 이어진다.

서재현의 아버지이자 스포츠클라이밍 대표팀을 지도하는 서중국 감독은 "메달 획득이 가장 큰 목표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서재현

은 볼더링을 위해 근력 훈련에 집중했고, 이도현은 리드에 필요한 효율적 등반에 중점을 뒀다. 신은철은 계속해서 기록을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0.01초 승부" 힘 다 쓰고 첫 메달 따겠다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남자 스피드 한국신 보유자 "1등부터 16등까지 승부 몰라 기죽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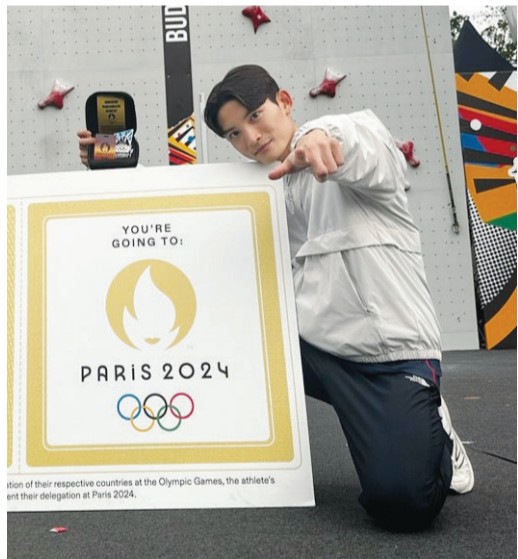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럴)이 0.01초를 겨루는 스피드 종목에서 '한 치 앞을 모를 승부'에 나선다.

남자 스피드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신은철은 오는 30일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신은철은 지난해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서울월드컵대회에서 자신의 종전 기록 5초 43을 0.3초 앞당긴 5초 13으로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최근 훈련을 통해 4.8초대까지 기록을 끌어올린 신은철에게 이제 남은 건 컨디션 유지다.

신은철은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아무래도 신기록도 신기록이지만 지금은 안 다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등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제대회 입상 경험이 전무한 신은철은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의 첫 국제대회 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사실 스피드클라이밍이 1등이든 16등이든 16강에 진입하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0.01초 차이로도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품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는 두 명이 동시에 높이 15m의 인공 암벽을 등반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며, 터치 패드를 먼저 찍는 선수가 승리한다.

신은철은 상대가 아무리 강한 선수일지라도 포기 없는 승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스피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빠른 상대라고 해도 처음부터 기죽고 포기하고 시작해버리면 좋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며 "혼자만의 등반을 하면서 '과거의 나보다 더 잘하자', '과거의 나만 이기자'는 마인드로 경기를 치러왔다. 결국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힘 다 쓰고 내려오겠다"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포부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아직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한국 선수단 '최고령' 사격 이보나 ... '4번째 올림픽' 김서영 미국 농구 제임스·세르비아 테니스 조코비치 등 '라스트 댄스'

마지막이 될지 모를 올림픽 스타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목욕 준비하는 베테랑들도 있다.

종합스포츠 경기대회 전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최근 파리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무대와 작별하게 될 스타 선수들을 소개했다.

먼저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대표적이다.

1984년생 제임스는 올해 12월에는 만 40세가 된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40대 중반이 되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다. 그의 아들 브루노도 올해 NBA 신인 드래프트에 뽑혀 2024~2025시즌에는 함께 LA 레이커스에서 뛰게 된다.

제임스는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올림픽에 출전한다.

'체조 전설' 시몬 바일스(미국) 역시 이번이 올림픽 고별전이 될 전망이다.

1997년생 바일스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여자 체조 올림픽 국가대표 최고령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관왕에 오른 해도 19세 신예였던 바일스가 2028년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까지 출전하려면 30대에도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테니스에는 세 명이 함께 '라스트 댄스'를 준비한다.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스페인), 앤디 머리(영국)가 그들이다. 이미 은퇴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4'로 군림했던 이들은 모두 30대 중반 나이가 됐다.

이미 1986년생 나달과 1987년생 머리는 올해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1987년생 조코비치도 다음 올림픽까지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

육상의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자메이카), 엘리우드 킵초게(케냐)도 30대 후반 나이라 이번이 올림픽 고별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서영

홉 매트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유도 종목의 테디 리네르와 클라리스 아그벵누(이상 프랑스), 여자 축구에 6번째 나오는 마르타(브라질) 등도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다.

한국 대표팀에도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임하는 선수들이 있다.

1981년생으로 한국 선수단 전체 최고령인 이보나(사격)는 "실력이 계속 좋아진다면 다음에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4년생 수영 국가대표 김서영은 올해 3월 파리행을 확정 짓고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이라고 말했으나 2028년 대회까지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핸드볼 감독인 1990년생 류은희도 8일 출국 인터뷰에서 2028년 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먼데"라고 웃으며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1호 보육원·500가지 요리·선수는 14500명

숫자로 보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메달 사냥의 꿈을 안고 파리에 모인 선수단을 위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이 18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림픽 선수촌 관련 주요 숫자 중 일부를 소개한다.

◇1=올림픽 선수촌 '1호' 보육원 마련

올림픽 및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선수촌에 보육원이 마련돼 기저귀 교환대·수유 공간·놀이 공간 등 부모인 선수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7=훈련 가능한 7종목

이번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는 스포츠는 농구·농구3x3·브레이크·핸드볼·펜싱(근대5종)·역도·레슬링 총 7종목이다. 훈련 장소 8곳 중 7곳은 파리 북부 근교 생드니에 위치한 영화 스튜디오 '시네마 뒤 시네마(Cite du Cinema)' 스튜디오에 마련됐다.

◇8=최대 8인실

이번 올림픽 선수의 숙박용 객실은 2인실부터 최대 8인실까지 다양한 형태로 준비됐다.

◇20=20가지 헤어스타일

프랑스 미용사가 12명의 직원과 함께 선수촌 광장에서 미용·네일·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 살

롱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운동선수를 위한 20가지의 헤어스타일 카탈로그가 제공된다.

◇55=선수단 이용 차량 55대

선수단이 훈련 및 경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가 55대 마련돼 있다.

◇80=선수촌 10km 이내 위치한 경기장 비율

올림픽 경기장의 80%가 선수촌 근방 10km 이내 위치해 있어 대부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100=근력운동 기계 100대

선수촌 내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총 100대의 근력운동 기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총 350개의 스포츠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

◇200=최소 200개소의 음식대

파리 시장 '안 이탈고'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수촌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음식대가 200개소 이상 설치됐다.

◇500=500개의 요리법

올림픽 빌리지의 셰프 팀은 책임감있는 식생활을 장려하고 프랑스의 전문성·미식을 선보이기 위해 500가지가 넘는 요리법을 창안했다. 이들은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산자·제철 재료를 사용한다.

◇800=800㎡의 오락 구역

선수단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락 구역이

800㎡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바리스타와 마사지 의자가 있는 릴렉스 존을 비롯해 일광욕 테라스, 게임존, 대형 스크린과 무대 등이 마련돼 있다.

◇6000=6000명의 주민 수용

2025년부터는 이번 올림픽 선수촌이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전환된다. 가족용 2000곳과 학생용 800곳으로 전환되며 모두 6000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

◇9000=9000그루 나무

선수촌에는 '나무 입양'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드 주' 마을 학생들이 후원한 9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14500=선수단 14500명 거주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선수촌에는 14500명의 선수와 스태프가 거주한다.

◇16000=1만6000개의 매트리스

선수촌 내 총 1만6000개의 침대매트리스가 제공됐다. 매트리스는 대회가 끝난 후 프랑스군, 사회초년생, 오페라 발레학교 등에 전달된다.

◇345000=가구 34만5000대

선수촌의 아파트 2800곳을 장식하기 위해 34만 5000대의 가구가 사용됐다. 대회가 끝난 후 일부 가구들은 재사용, 재활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